

Dave Mathewson 박사, 요한계시록, 강의 24, 요한계시록 18:9-19:10, 애도와 기쁨 바빌론의 몰락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24회, 요한계시록 18:9-19:10,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곡과 기쁨입니다.

18장 9절부터 19절까지에서 우리는 에스겔 27장에서 두로의 멸망에 대한 반응으로 애도하고 탄식하는 것과 같은 애통과 애통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와 협력한 사람들, 로마의 부와 경제 체제를 공유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의 애도와 탄식을 발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그들의 죽음을 의미하며 그들의 근원이 타락함을 의미합니다. 재산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몰락과 그것이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슬퍼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18장 9절부터 19절까지의 애곡과 애도가 세 가지 다른 그룹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9절과 10절의 땅의 왕들의 애곡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11절부터 17절의 상인들의 애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서에서 두로 신탁을 지배했던 그룹이 나옵니다. 27은 선주 또는 선주로서 해운업을 통한 무역을 통한 상업에 종사하는 자의 집단이다.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 그들의 애도가 마지막 그룹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의 반응 방식이 정점에 도달한다는 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부터 시작하여 땅의 왕들의 애곡과 그들이 이 부분에서 애곡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 그들이 로마 바벨론과 간음하였고 이것이 육신적인 간음이 아님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몇 가지 논평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육체적 간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대신에 그녀의 부와 우상 숭배에 참여한다는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가 창녀로서 다른 나라들을 그의 경제 행위에 연루시켜 그와 간음하게 하여 그들이 지나치게 부유해지고 재물을 위해 소비를 즐겼으며 로마와 연합함으로써 말미암아 과도한 부를 누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호화롭게 살아온 두 번째 이유이다. 그들은 로마의 부로 부자가 되었는데, 이제 그들은 그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말하자면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 서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지금 로마에 임하고 있는 심판을 피하려는 그들의 소망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이 화의 형태로 반응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8장의 끝 부분에 있는 나팔 심판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가지 나팔 심판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화라고 불렀습니다. 화를 말하는 것은 장차 임할 심판 곧 한 나라에 임할 심판 때문이 아니라.

그러므로 화는 지금 로마 바벨론 성에 임한 심판을 인하여 애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요. 땅의 왕들은 로마의 부로 인해 지나치게 부유해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7장에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창녀와 간음하였고 이제 그의 심판 앞에서 애통합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에서 우리는 두 번째 그룹인 상인들의 애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서 저자는 특히 에스겔 27장에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27절과 30-32절에서 우리는 에스겔 27장이 특히 해운업에서 상업을 수행했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지금은 몰락으로 인해 애도하고 있는 애가라고 말했습니다. 두로성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러나 27장과 27절에서 그분은 여러분의 부와 상품과 상품과 선원과 선원과 조선공과 상인과 모든 군인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부터 33까지 그들은 소리를 높여 통곡할 것입니다. 그들은 너 때문에 머리를 밀 것이다.

그들은 굶은 베를 입을 것이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고 애통해하며 너를 위하여 애곡할 것이다. 그들은 당신에 관해 한탄할 것입니다. 바다에 둘러싸인 티레처럼 침묵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네 상품이 바다로 나갈 때에 네가 많은

부와 물품으로 많은 나라를 만족하게 하였도다. 당신은 땅의 왕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계시록에서와 같이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도 세 그룹이 있고 땅의 왕들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상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주와 해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 모두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애통하는 세 그룹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에스겔 27장을 바탕으로 상인들에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에서 그들이 애통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부의 원천인 로마와 관련된 무역이 이제 로마의 멸망으로 인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기심과 부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이 이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화물 목록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요한이 구약성서의 배경을 지닌 광범위한 사치품 목록을 작성한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요한이 로마로 수입될 정확한 상품과 화물에 맞게 그것을 맞춤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치품을 로마로 수입하는 일에 참여하여 부자가 된 상인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러한 것 중 상당수는 부유층만이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고급 품목입니다. 밀이나 곡물과 같은 것 중 일부는 모든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필수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6장에서 우리는 로마 역사상 여러 번 보았지만, 그조차도 평범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풀려진 가격으로만 부유한 사람들만이 구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화물 목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는 12절과 13절에 나오는 화물 목록이 요한이 바벨론을 주로 로마의 도시로 보고 있다는 또 다른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의 주석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항목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상 모든 주석 설명에서 읽을 수

있으며 심지어 로마와의 연관성과 사실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로마에서 수입되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무역 사업에서 수익성이 높았으며, 상인들에게도 수익성이 좋았을 것이며 로마 시의 엘리트 구성원들에게 높이 평가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목록은 로마를 과도한 부와 사치에 폭 빠진 도시, 그리고 물질적 재화에 대한 갈증과 탐욕이 특징인 도시로 묘사하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바로 요한이 로마를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상인들도 이러한 화물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가 멸망하고, 이제 로마 바벨론도 멸망하였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로마의 부를 가지고 호화롭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목록에서 여러분의 관심을 끌고 싶은 두 가지 놀라운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금, 은, 보석, 그리고 고운 아마포, 자색 비단, 진주에 대한 언급에 유의하십시오. 두 가지 중 첫 번째, 자주색 아마포와 금과 보석의 그림은 매춘부에 대한 묘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 일종의 매춘부의 복장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17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도 자색 옷과 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창녀에 대한 묘사는 그 창녀의 옷차림뿐 아니라 그의 부를 과시하는 것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 그것이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우리는 이미 창녀에 대한 묘사와 관련하여 언급했는데, 이는 또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예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예루살렘은 귀한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진주 문이 있고 또한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그래서 이 모든 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흥미로운 점은 맨 마지막 항목이 제안 중에 있다는 점인데, 그것이 금, 은, 보석과 같은 무생물에서 향료와 목재 제품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옷감 제품 등으로 어떻게 옮겨가는지 주목하고, 그런 다음 기름과 밀과 같은 식품. 그러다가 소나 양, 말, 마차 같은 생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도 포함됩니다. 아마도 이 추가된 요소는 로마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노예 무역을 반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노예 제도 정도에 대해서는 온갖 종류의 추정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수단을 통해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누군가가 노예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빛 때문에 자신을 노예로 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로마가 영토를 정복하면 노예가 수입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종적 노예 제도가 아니라 흥미롭게도 현재 노예로 수입된 로마 지방 출신의 사람들의 노예 제도입니다. 마치 인간의 몸이 인간의 신체에 대한 언급을 알아차린 것처럼 그들이 양과 소의 그룹에 포함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마치 인간의 몸이 이제 소와 양이 그러하듯이 사치품과 금전적 이익을 위해 거래되는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잘. 그러나 요한은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밝히기 위해 인간의 영혼을 추가합니다.

거래되는 이 목록의 끝에서 신체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지만 John은 그것이 실제로 인간의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제 그것들을 단지 부를 얻기 위해 거래하거나 수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게 됩니다. 비록 눈에 띄지는 않지만, 나머지 제국과 세계를 희생시키면서 로마 경제를 얻는 것은 여전히 로마 경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로마가 부를 늘리고 과도한 사치에 대한 탐욕과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른 나라를 착취하고 심지어 자신의 지방까지 착취함으로써 부유하고 사치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그들은 그들의 부의 원천인 이 화물 목록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14절의 표현, 즉 당신의 욕망의 열매를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그래서 로마는 사치와 부를 탐하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이제 그것이 제거되고 로마의 이기적인 경제 시스템과 부는 파괴되었습니다. 즉, 로마는 우리가 본 대로 스스로를 섬기며 심지어 자신의 속주 내에서도 다른 나라를 착취하고 해를

끼칠 정도로 존재했습니다. 이제 이 그룹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왕들처럼 그들도 심판을 두려워하는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판단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땅의 왕들처럼 그 도시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세 그룹 모두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세 그룹 모두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 두 그룹에서 로마에 대한 애도와 애도가 포함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파괴.

그것은 그들의 멸망에 대한 화가 있을 것이며, 그런 다음 대개 그들이 그들의 멸망과 심판에 관여하지 않기 위해 멀리 서 있는 모습을 묘사할 것입니다. 16절은 상인들과 땅의 왕들의 반응이다. 16절은 그들이 외치는 것을 암시합니다. “워, 워, 워, 워, 오, 고운 베와 자색 홍색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빛나는 큰 성이로다.” 다시 로마의 사치스러운 성격을 언급하면서 17절 4절을 다시 언급하고 창녀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개념은 로마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로마와 그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맞춰진 경건하지 않고 우상 숭배적인 경제 시스템에 연루되어 로마와 간음하도록 함정에 빠지고 유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와 과도한 사치에 대한 갈증과 욕망. 그런데 여기 있는 상인들은 로마의 재물을 함께 나누어 로마와 간음한 자들입니다. 그러다가 한 시간 만에 그 엄청난 부가 망쳐졌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다시 한 시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 바빌론의 멸망이 갑작스럽고 신속하며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문자 그대로 멸망시키는 데 한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한 시간이라는 상징적 가치는 바벨론 로마의 멸망을 특징짓는 신속함과 갑작스러움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룹, 마지막 그룹, 세 번째 그룹, 마지막 그룹은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선주의 애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체적으로 한 번씩 두 번 언급하고 읽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스겔서의 두로에 대한 신탁인 에스겔서 27장의 두 부분을

읽었습니다. 선주들과 해운 산업을 통해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이제 로마와 연합하여 해상 사업을 통해 부를 얻은 해운 관련 사람들에 대한 요한의 언급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들도 서서 바벨론의 멸망이 미치는 파괴적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세 번째의 주요 초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이 세 번째 것은 요한이 에스겔 27장과 28절부터 33절에서 베옷을 입고 티끌을 몸에 뿌리고 심지어 흙을 굴러 애도하는 어떤 사람들의 언어를 선택하기 때문에 좀 더 강렬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의 몰락. 그러므로 이 부분의 주요 주제는 바벨론의 멸망이 현재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완전히 파괴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이제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로 입증되는데, 이는 아마도 회개의 표시가 아니라 단순히 슬픔과 애도의 표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머리에 티끌과 재를 뿌리는 것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여기서는 에스겔 27장에서와 같이 단순히 애도와 슬픔의 표시일 뿐이며, 이는 개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부유하게 된 도시의 몰락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로마의 멸망을 애도하는 애도자들의 삼중 반복이 언급되어 있고, 이것을 암시하는 세 그룹의 반복성을 강조하여 세 개로 나누어졌을 수도 있지만, 그들 모두는 로마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의 원천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로마의 심판을 지켜보며 앉거나 서서 지금은 멀리 서서 그 도시에 슬픔의 통곡을 퍼붓고 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로마의 심판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즉, 간음한 사람들은 로마 도시와 간음한 것입니다. 로마가 부에 참여하고 로마와 상업을 통해 부자가 되도록 유혹한 사람들. 자, 이것은 이 본문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영어 번역은 여기서 중단을 하지 않으므로 여러분은 이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장 20절에는 분명히 중단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일종의 중단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부를 얻은 세 그룹이 지금 로마의

멸망과 심판을 애도하는 비애와 애도 사이에 분명한 대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20절에서는 대조적으로 20절에서 로마의 멸망을 기뻐하는 일단의 성도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왕, 상인, 선주의 세 그룹만이 로마의 몰락에 대응하는 유일한 그룹은 아닙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었고 로마 경제에 유혹을 받아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애도하며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의 몰락에 대응하는 또 다른 그룹, 즉 로마 바벨론이 있는데, 그것은 20절의 성도들입니다. 하늘이여, 그로 인해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하나님께서서는 그녀가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그녀를 심판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18장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그룹을 3인칭으로 설명합니다. 땅의 왕들이 한 일이 이것이며, 상인들이 한 일이고, 선주들이 한 일이니라.

이제 20절에서는 2인칭으로 바뀌는데, 여기서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직접 언급되며,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갚으셨으므로 기뻐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20절은 일종의 강조이므로 19절과 20절 사이에 약간의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반응은 약간 더 중요하며 상인들의 반응에 비해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몰락.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20절에서 저자가 예레미야서 51장을 다시 언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요한은 예레미야서 51장 첫 부분, 특히 4절부터 시작합니다. 아마도 바벨론에서 도망하라는 명령 뒤에는 이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이 로마의 경제 관행, 이상 숭배, 특히 국가를 부에 참여하도록 유혹하는 매혹적인 관행 때문에 로마를 비판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서 떠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요한은 또 다른 신탁, 즉 티레에 대한 신탁으로 갔습니다. 티레에 대한 신탁은 두로의 상업과 지나친 사치와 부 때문에 요한이 로마를 비판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점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로마에 대한 묘사와 비평을 위해 에스겔서, 특히 27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51장 48절에서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외칠 것이라고 읽습니다. 이는 파괴자들이 북쪽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51장 48절에서 하늘과 땅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외친다고 언급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하늘과 모든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지금 기뻐하고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도록 요청받는 20절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은 그들의 피를 갚아주고 기뻐하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한은 바벨론의 심판을 묘사하는 예레미야 51장의 주요 모델로 돌아왔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바벨론의 몰락에 대한 다양한 반응의 끝을 맺게 됩니다. 그 중 하나는 경제적 관행을 통해 로마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익에 연루되도록 유혹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성도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이제 로마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원수를 갚으시려고 행동하셨으므로 성도들은 기뻐합니다. 그 다음 이 장은 21절부터 24절까지에서 바벨론의 황폐와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최종 요약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21년과 24년에도 또다시 일시적으로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21~24일이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21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음을 분명히 가정하는 9절부터 19절 이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멸망을 한탄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는 일시적으로 바벨론이 멸망되기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바벨론의 멸망과 그 영향을 더욱 해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0절에서는 성도들이 기뻐하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1절부터 24절까지는 20절에서처럼 성도들이 기뻐하는 이유를 더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예언적인 행위로 시작됩니다. 때때로 예언서에서 선지자들이 실제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일종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예레미야 51장에서 다시 한 번 발견됩니다.

예레미야 51장에서 요한은 역사적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한 전반적인 몰락을 묘사하기 위해 모델을 사용해 왔으며, 요한은 이를 여러 번 그렸습니다. 이제 51장과 63절에서 우리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흥미로운 예언적 행위, 즉 예언적 행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63절에 나옵니다.

6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말하십시오. 여호와여, 이 곳 바벨론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곳은 영원히 황폐될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다 읽으면 거기에 돌을 묶어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라. 그러면 바벨론이 가라앉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릴 재앙으로 인해 그 백성이 쓰러질 것이다.

그것은 여기 21절에서 일어나는 일, 즉 힘센 천사에 대한 모델을 제공합니다. 거기에 묶인 두루마리는 없지만 일종의 상징적 행위, 예언적 상징 행위를 하는 천사가 맷돌을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 51장에서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천사는 그것을 해석하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큰 도시도 무너져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21장에 나오는 천사의 이 상징적 행위는 바벨론, 즉 로마 자체를 무너뜨리는 상징적 활동, 상징적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John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역사적 몰락이 일종의 유형학적으로 새로운 바벨론의 몰락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와 로마제국입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22절과 23절은 이에 대한 결과를 더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벨론에서 생명의 모든 흔적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듣게 될 생활의 모든 일상적인 일들, 피리와 수금 연주와 혼인 잔치, 맷돌 가는 것,

곡식 가는 것, 그 모든 것, 너희가 듣는 등불의 빛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나타내는 방법이다. 집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의 정도와 완전한 성격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로서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23장과 24장은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를 요약함으로써 끝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첫째, 당신의 상인들은 세계의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법으로 인해 모든 나라가 잘못된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밋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선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찬송가에서 하나님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양, 경배, 영광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들의 오만함과 자기 영광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자극하는 교만과 자기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와 이에 가담한 국가들이 현재 저지른 첫 번째 범죄입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마법이나 마법이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과 우리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입니다.

요한이 이미 17장과 18장에서 로마를 비판한 내용을 반복하는 주요 요점은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유혹하여 그녀와 간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을 속이고 기만적이고 매혹적이고 유혹적인 우상 숭배와 경제 관행에 가두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의 피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미 그 주제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폭력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즉, 성도들의 피에 취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박해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51장과 49장도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성도들의 피뿐 아니라 그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로마를 폭력을 통해 통치를 확장하고, 폭력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통치를 유지하고, 경제를 유지하는 제국으로 묘사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과 49절은 아마도 요한이 인용한 본문일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인해 온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망한 것처럼, 바벨론도 이스라엘의 살육으로 인해 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51장과 49장에서 바벨론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죽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은 로마의 죄인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로 끝나느니라.

그래서 18장을 결론짓는다면, 기본적으로 18장은 성도들이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의 심판을 기뻐하라는 요청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성도들의 피를 갚아 그들을 변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자는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이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적어도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성도들의 기쁨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17장과 18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로마는 자신을 신으로 자처합니다.

바벨론, 로마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주장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예배와 영광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둘째, 바벨론, 로마는 다른 나라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교만하고 부를 과잉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로마는 부와 사치를 갈망하는 것으로 묘사되며, 점점 더 많은 물질적 재화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심지어 자신의 영토를 착취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게다가 이번이 세 번째일 수도 있는데, 부의 문제에 더해 그들은 자신들의 부 축적 욕망과 지나친 사치 소비에 더해 다른 나라들도 간음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오직 로마의 이기적인 이익만을 목표로 하는 그들의 경건치 못한 경제 체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바벨론, 로마는 극도의 폭력을 저지른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피에 대한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죽인 다른 이방 사람들의 피에 대한 죄도 있습니다. 이를 묘사하기 위해 저자는 바벨론과 로마의 성격과 그 심판을 묘사하기 위해 수많은 구약의 본문, 예레미야 등의 수많은 구약의 본문을 그렸지만, 바벨론의 심판과 몰락을 묘사하는 에스겔과 이사야도 그렸다. 같은 범죄,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른 역사적 국가들.

그러므로 로마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신이 없는 도시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날 이러한 모든 특징들의 결합과 출현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그분의 백성은 그분이 로마라는 형태로 또 다른 사악하고 신이 없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심판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구약이 그에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우상 숭배하고 부유하며 폭력적인 제국을 심판하시는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로마는 실제로 한 세기 후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요한 시대에 그가 직면했던 로마의 멸망으로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제국을 구현한 로마도 이제 같은 운명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의 다른 예언 본문을 통해 그것을 해석합니다. 동시에, 나는 아마도 우리가 바벨론과 로마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요한이 분명히 그의 충구를 당시의 제국인 로마와 황제들에게 겨누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17장과 18장에 이르면 요한이 더 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배경으로 1세기 로마 도시인 로마에 대한 심판을 설정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보면 종말의 도시,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 세계를 대표하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로마를 본 다음 제국의 계승을 예언한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로마와 최종 심판 사이에 긴 간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점은 요한이 독자들이 상황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돕고, 진정한

목시적인 방식으로 로마의 진정한 본질을 밝혀내고 그들에게 상황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1세기 로마의 상황을 보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적들의 궁극적인 멸망과 이 땅과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을 배경으로 그 멸망을 묘사할 것입니다. 이동하려면 19장으로 즉시 이동하세요. 예를 들어 잠시 후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마도 로마와 그 멸망이 1세기 로마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성서의 역사를 지닌 바벨론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요한이 일종의 원형을 지닌 상징을 사용했거나 결국 전 세계를 포괄할 모델을 제공한 것과 거의 같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심판으로 종말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1세기 로마는 이제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라는 더 넓은 배경을 배경으로 묘사됩니다.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결론은 19장과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마지막 찬송과 전환이 있습니다. 사실 6절은 마지막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9장과 10장은 바벨론 로마 심판 장면에 대한 일종의 결론을 제공하고 1911년에 시작되는 다음 장면, 즉 최종 심판으로의 전환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1820년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는 성도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라는 말을 듣는 것을 방금 보았습니다. 이제 온 하늘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기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장과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즉 18장에서 본 사건 후에, 나는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간음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정죄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종들의 피를 그 여자에게 값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은 할렐루야, 그 여자의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올라가라고 외쳤다. 이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엮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부르짖더라.

그러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그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시더라. 그 때에 나는 큰 무리의 소리와 같이 큰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준비하였느니라.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를 그에게 입혀 주었더라.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상징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8장 20절에 온 하늘이 함께 부르짖고 기뻐했던 찬송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 하늘이 큰 무리의 형상으로, 24장로와 네 생물의 형상으로,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지금 찬양 중에 외치는 소리와 기쁨을 발견합니다. 흥미롭게도 움직임에 주목하세요.

19절 초반에는 큰 무리의 함성소리처럼 들리는 큰 무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24장로와 네 생물로 좁혀집니다. 그리고 5절에는 보좌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더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다시 또 다른 큰 무리로 확장되는데, 절정의 장면에서 이제 여러분은 급류의 포효와 큰 천둥소리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넓은 것에서 매우 좁은 것으로의 움직임, 즉 보좌에서 들려오는 음성과 뒤로 물러나서 큰 무리와 같은 음성, 급히 흐르는 물과 천둥처럼 들리는 음성에 주목하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의 주요 기능, 18절의 주요 주제는 이제 성도들의 기쁨과 찬양을 나타냄으로써 일어난 심판을 더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18장의 주요 주제 중 일부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하고 공의로 묘사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므로 17장과 18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의 결과로 설명됩니다.

그 근거로 그분은 이제 사악하고 신이 없는 제국을 심판하기 위해 행동하십니다. 둘째, 이 심판의 이유가 바벨론의 범죄나 바벨론의 죄라는 것이 반복된다는 점에 다시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우상 숭배 행위와 부에 대한 탐욕을 통해 땅을 부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그것에 참여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피를 갠하셨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이것은 아마도 본문을 우리가 여러 번 본 성도들의 기도, 특히 8장에서 천사가 부은 향과 섞인 기도뿐만 아니라 8장에서 순교자들의 부르짖음까지 다시 연결될 것입니다. 6장 10절.

오 주님, 당신께서 우리 피를 갠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이까. 이제 하나님은 원수에게 복수하고 원수를 심판하심으로 그의 백성을 변호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피를 갠신다는 관점에서 입증을 보았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 그들을 죽인 자들, 그들의 신실한 증거 때문에 그들을 멸하려던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변호하고 심판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배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분명히 보지 못한 입증 과정의 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부정적으로 심판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므로써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7장에서, 14장에서 조금, 그리고 15장에서 성도들이 짐승에게 복종하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바다 위에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새로운 출애굽의 바다가에서 승리를 거두고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원수들을 심판하고 형벌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보상을 통해 그들을 변호하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심으로써 그들을 보상하심으로 성도들을 변호하시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옹호의 긍정적인 측면이 20장부터 시작하여 22장까지 더 자세히 설명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의 사건을 해석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나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실제로는 1절부터 8절까지, 6절 마지막 부르짖음인 7절과 8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찬양이 그 내용이다. 저것.

이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고 죽이는 자들을 형벌하시고 심판하심으로 그의 성도들의 피를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단의 언어에도 주목하십시오. 나는 18장 8절 이하에서 이사야 34장, 9장, 10장의 구약성경 본문을 반영하여 연기가 올라가는 언어, 타는 듯한 언어를 심판의 상징으로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성도들이 기뻐하는 근거인 영원한 심판으로 더 설명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와 공의에 관한 모든 주제를 그분의 심판의 근거로 삼고, 바벨론의 죄를 그들 자신의 지나친 사치에 얽매이게 하고 미혹하여 그것에 연루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원수들을 벌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으로 심판을 묘사하는 것은 모두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미 소개한 주제의 연속일 뿐입니다. 6절, 7절, 8절의 이 마지막 찬송에 대한 몇 가지 다른 관찰은 전능자에 대한 언급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곱째 인, 즉 11장 17절의 일곱째 나팔에서 발견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복합니다. 일곱째 나팔은 우리를 종말에 이르게 했으며, 이는 일종의 주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기대 또는 스냅샷이었습니다., 세상의 왕국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될 곳입니다. 이제 우리는 6절에서 반복되는 주제, 즉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봅니다.

즉,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뜻이 이제 마침내 이 땅을 덮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만물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에서 인정되는 4장과 5장의 성취가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벨론이 멸망됨에 따라 바벨론 왕국도 제거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땅의 나라는 더 이상 로마 바벨론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대답하는 질문 중 하나를 말했습니다. 주요 질문 중 하나는 누가 통제하고 있습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바빌론인가? 로마인가요? 아니면 다른 역사적인 도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만 계시나요?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땅에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나중에 다루게 될 또 다른 중요한 주제,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증의 긍정적인 측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혼인 잔치의 관점에서 이해됩니다. 19장 7절과 8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몸을 준비하고 희고 빛난 세마포를 그에게 주신지라. 이제 저자는 7절과 8절에서 혼인 잔치 이미지와 같은 연회 이미지로 전환합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야훼의 신부로 묘사되고 야훼는 그녀의 남편으로 묘사된 구약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묘사의 배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마지막 결혼에 대한 종말론적 묘사입니다.

비록 지금은 구약성경 본문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방언의 백성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신부가 됩니다. . 이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본문 중 하나는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나올 본문, 즉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종말을 묘사하기 위해 혼인 비유, 결혼 언어, 혼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백성과의 관계. 그 본문 중 하나가 이사야 61장인데 10절, 이사야 61장과 10절에 내가 여호와를 크게 기뻐함은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즐거워함이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옷을 입으되 신랑이 제사장처럼 머리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꾸미듯 하리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신부가 자신을 치장하고 혼인을 준비하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신부로 묘사되는 이 언어는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절정과 성취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안한 것처럼 차이점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현재 어린 양의 신부인 다른 나라 사람들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흰옷을 성도들의 행실로 해석하는데, 아마도 여기서 다시 흰옷은 그들의 순결함, 즉 그들이 로마 통치에 물들지 않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적인 관습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의미할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 로마와 간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간음하는 자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서 승리와 순결과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혼인 잔치의 언어 역시 종말론적 구원을 상징하는 혼인 잔치의 개념을 반영할 수 있으며, 예수의 비유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4절은 혼인 잔치와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열 처녀의 비유, 다섯 처녀는 어리석고 다섯 처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잔치 언어는 아마도 다른 곳에도 배경이 있을지라도 요한이 예수의 전통과 예수 자신의 가르침, 최종 종말론적 구원의 상징인 종말론적 혼인 잔치에 대한 가르침과 접촉한 또 다른 예일 수 있습니다. 요한이 끌어냈거나 적어도 알고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유사점은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은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그가 예비하실 신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실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찾은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혼인 잔치에 있는 신부의 이미지는 하느님의 백성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친밀감, 친밀감, 긴밀한 관계와 친교를 분명히 상징합니다. 이 섹션을 마무리하는 두 가지 마지막 사항입니다.

9절에 기록하라는 명령을 주목하라. 비슷한 명령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발견됩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번 발견됩니다.

요한은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고 글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이 것들을 본 후에 반드시 쓰게 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기록하라는 명령은 요한이 본 것과 듣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우리는 요한이 바벨론 멸망의 환상적 여행으로 그를 인도한 천사에게 몸을 굽혀 경배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흥미로운 장면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천사의 반응입니다. 나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나는 단지 종이니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이 장면이 두 번 발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2장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이 하나님과 함께 예배를 받는 5장의 맥락에서 그것이 어떻게 유일신론적인 환경과 모순되지 않을 수 있는지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천사는 천사 같은 존재만큼 고귀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경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사 같은 존재가 아무리 높더라도 엄격한 유일신론을 낳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숭배할 가치가 없습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리 고귀한 천사라도 무엇이든 숭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그런 진술의 맥락에서 어떻게 어린 양이 4장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동일한 언어와 동일한 예배로 예배를 받고 결국 같은 보좌에 앉으시는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신가요? 그래야만 요한계시록 뒤에 숨어 있는 유일신론을 어기지 않고도 어린양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마지막 전투 장면을 준비합니다.

사도행전 섹션에서 우리는 해당 구절을 살펴보고 이 전투 장면의 기능이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장 11절부터 11절까지의 마지막 전투 장면의 특징 중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21.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관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는 Dr. Dave Mathewson입니다.
24회, 요한계시록 18:9-19:10,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곡과 기쁨입니다.